

광주·대구 '달빛동맹'...이젠 대한민국 '상생 브랜드'

농식품 교류의 장 '달빛동맹관'·프로야구 '달빛 시리즈' 등 진행 달빛철도특별법 등 넘어 청소년·금융·문화까지 민간분야 확대

'빛고을' 광주시와 '달구벌' 대구시의 '달빛동맹'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8~31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4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에 광주 14개 업체가 참여해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 김치, 떡갈비, 제과·제빵, 전통주 등을 소개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두 도시

에서 열리는 식품전에 '달빛동맹관'을 운영하는 등 농식품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다. 두 광역단체 공직자 122명은 최근 고향 사랑 상호기부에 참여하는 등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교류를 진행했다. 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는 '달빛 시리즈'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DGB대구은행 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와 대구FC 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두 지역 기상청,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폭염 대응 달빛 포럼을 열고 폭염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청년 미술작가들은 최근 광주 시립미술관과 관선재 갤러리에서 '달빛 교류전'을 열어 작품 세계를 공유했다. 광주은행, iM뱅크(옛 DGB대구은행)는 2015년 협약 체결 후 영호남을 오가며 달빛동맹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는 전남대학교 인공지능(AI)융합대학에 지난 1학기 달빛강의실을 개설하고, 컴퓨터 정보계열 학생들의 수업에 진행했다. 조선이공대와 영남이공대는 지난해 '영호남 이공대 워크숍'을 열었으며, 조선대학교와 계명대는

교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등 대학간 교류도 활발하다. 상호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교류, 여성단체협의회와 방문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대구·광주 청소년 문화교류는 2013년부터 시작해 12년째를 맞았으며,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대구여성단체협의회도 해마다 두 도시를 서로 방문하며 화합을 다져가고 있다. 행정영역에서도 광주시와 대구시는 2022년 11월 하늘길·철길·물길을 여는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4월 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올 1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등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며 '달빛동맹'을

균건히 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달빛철도 경유지 기초지자체와 함께 영호남 상생발전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동서화합과 공동번영, 수도권 일극주위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동맹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협치모델이자 대한민국 건강회복 프로젝트로 양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면서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광주와 대구는 서로 섞이고 연결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남부 르네상스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외국에 온 듯...신안 풍광 즐겨요" 25일 오후 신안군 암태도 오도항에서 관광객을 실은 요트가 천사대교와 신안의 여러 섬들을 향해하며 여름 바다의 풍광을 보여주고 있다. 1004 요트투어는 주간에는 60분, 일몰&야경투어는 70분간 체험할 수 있으며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코로나 입원환자 한달새 22배 급증...광주시, 민관 대응 강화

선제적 관리·집단감염 예방 집중...전남도도 긴급 회의 개최

광주시가 지역 의사회·약사회·병원회·보건소 등과 코로나19 민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에서 한 달 새 200명 이상 병원급 입원환자가 20배 넘게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5개소)의 8월 3주 입원환자는 65명으로, 4주 전 3명 대비 22배나 증가했다. 이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이 75.4%(49명)에 이른다. 시는 지난 22일 이승욱 광주전남병원회 부회장, 서정성 광주시의사회 부회장, 김동균 광주시약사회 부회장, 박경화 광주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5개 자치구 보건소장 등 의료관계자들이 참석한 '코로나19 유행 대응 지역의료(민·관) 협의

체'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진료공백 및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응급실 과부하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또 이날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확산 대비 일반의료체계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수급관리 및 대응, 감염취약시설 지침 개정에 따른 관리 강화 방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홍보 방안 등도 협의했다. 광주시는 일단 삼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병·의원 등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입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체계를 유지하되 중증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적극 반영해

자치구별 감염취약시설과 보건소 전담대응팀 간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황 파악, 유증상자 관리, 감염관리 교육 등 집단감염 예방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도 고위험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처방기준 준수, 조제기관 재정비, 기관별 수급현황 모니터링 강화 등을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에 각각 요청했다. 전남도도 지난 23일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긴급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병상 확보, 치료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놓고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책 점검 ▲변이바이러스 대비책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예방전략 강화 등 각 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지음·박진표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다섯번째 유찰

시, 공사비 증액...수의계약 추진

예상대로 '남공사 구간'으로 꼽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공구와 10공구 건설공사 입찰이 또 유찰됐다. 벌써 5번째 유찰로, 광주시는 공사비를 증액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25일 광주시와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진행된 2개 공구 건설공사 5번째 입찰이 지난 23일 유찰됐다. 7공구에는 2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했다. 10공구는 1개 업체만 단독 응찰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그동안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를 비롯한 다른 공구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등과 접촉해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뒤 계약하는 '수의시답'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사 업체들이 주장하는 공사비 적자 예상에 따른 증액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적절한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 등이다. '광역권 최초의 순환선'인 2호선은 1단계(광주시청-광주역·17km)와 2단계(광주역-시청 구간·20km), 3단계(백운광장-효천역·4.8km)로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애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던 1단계 공사는 2019년 10월 시작되는 등 공사 기간 자체가 3년 정도 지연됐으며, 2단계 구간 역시 7공구와 10공구 사업이 연이어 유찰되면서 공사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남공사 구간으로 꼽히는 7공구(전남대 후문-오치동 육교 2.5km)는 상습 교통 정체 구간으로, 이동인구가 많고 상가 밀집 지역인 탓에 도로 전체를 파헤치는 도시철도 공사 진행 시 교통 대란과 함께 인근 상인 등의 민원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변 건축물 중 상당수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라는 점에서, 지하터널 공사 시 상·하수도 균열, 건물 훼손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0공구(본충동 오비백주광장-양산지구 사거리 1.8km)도 좁은 도로와 오르막 길 등이 많고 출·퇴근길 차량 정체도 심각한 구간으로, 공사 난이도가 높은 구간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완공 시기 지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도시철도건설본부측은 올해 안에만 업체가 선정된다면 전체 공사 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배민 탈퇴' 서명 운동...광주 1000명 넘어서

배달의민족(배민) 중개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한 광주 소상공인들의 탈퇴 서명 운동 참가자가 목표치인 1000명을 넘어섰다. 25일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자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배달의 민족 독립(탈퇴) 1000인 디지털(전자) 서명 운동'을 시작한 이후 8일 만인 지난 22일 현재 10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재단은 예정된 오는 30일까지 서명을 이어가고, 광주중성역 등에서 한국 소비자연합회 광주시지회·의식업 중앙회 광주시지회와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기존보

다 3%P 높은 9.8%로 인상하자 민간 독점 플랫폼을 탈퇴하고, 광주 공공 배달업인 '위메프오'와 '맹겨요' 이용을 시민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영숙 한국 소비자연합회 광주지회장은 "독점 플랫폼의 횡포가 심각하다"며 "소비자 선택이 소상공인 상생과 직결된 만큼 광주부터라도 공공 배달업 사용에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이 포용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소상공인 유관 기관과 소비자단체·라이더연합회 등과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